

연구논문

공감은 신뢰를 낳는가?: 신뢰반경에 대한 거시적 조망수용의 영향*

유찬기* · 장원호**

이 연구는 공감과 신뢰 각각이 지닌 심리사회학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경험적으로 검증된 바 없던 공감의 다양한 측면과 사회적 신뢰 사이의 관계에 대한 탐구를 목적으로 한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타인을 잘 신뢰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 대상에게 공감을 하는 데 있어 어떠한 종류의 공감능력이 요구되는지는 그 대상과의 사회적 거리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이 연구는 공감의 사회적 측면인 거시적 조망수용이 신뢰반경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이 연구는 1,073명의 성인 남녀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의 결과, 높은 수준의 거시적 조망수용을 지닌 사람일수록 더 넓은 신뢰반경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공감의 다양한 측면과 사회적 신뢰 사이의 경험연구에 대한 초석을 마련하며, 동시에 사회자본으로서의 신뢰를 증진 시키기 위한 실천적 함의를 제공한다.

주제어: 대인적 공감, 거시적 조망수용, 신뢰반경

* 이 연구는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NRF-2017 S1A3A2067374).

본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준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표한다.

** 서울시립대학교 글로벌문화-공감사회연구센터 연구원(salixck@uos.ac.kr), 제1저자.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wjang@uos.ac.kr), 교신저자.

I. 서론

1차 세계대전이 다섯 달째 지속되고 있었던 1914년 12월 24일 저녁, 프랑스 플랑드르 지방에서 영국군과 대치하던 독일군의 진영에서 크리스마스 캐럴이 울려 퍼졌다. 영국군은 이에 응해 함께 캐럴을 불렀고, 곧 전쟁터에는 평화가 깃들며 하루나 야측 군이 서로 섞여 소통하고 협력하는 기적을 만들었다. 이들이 참호 밖으로 나와 서로를 마주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비록 어제까지 서로에게 총칼을 겨누던 적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나를 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Rifkin(2010: 5-7)은 이를 인간의 공감본성이 만들어낸 신뢰의 기적으로 묘사한다.

공감은 과연 신뢰를 낳을 수 있는가? 몇몇 현대 철학자들은 공감이 다양한 도덕 관념에 영향을 미치며, 타인에 대한 신뢰의 형성 등 대인관계에 있어 이로운 효과를 지닐 것이라 주장한다(Bailey 2018; Betzler 2019). 그러나 공감이 이타행동(Batson et al. 2015), 친사회적 행동(Davis 2015) 등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여겨지는 심리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에 대하여 그간 사회과학의 많은 영역에서 연구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Gerdes et al. 2010; 유찬기·남기범 2018), 공감과 신뢰 사이의 관계에 대한 사회과학적 경험연구는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다. 여태까지 수행된 공감과 신뢰에 대한 경험연구들은 주로 공감을 받고 있는 대상자가 공감주체에게 느끼는 신뢰에 대한 연구들이며, 특수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온 연구들이다.

예를 들어 Hojat et al.(2010)은 의사에게 진료 받은 적이 있는 미국의 성인 외래 환자들을 대상으로 우편설문을 실시하여 환자가 지각한 의사의 공감 정도와 의사에 대한 대인적 신뢰 등의 항목을 측정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의사가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 고민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관점에서 생각해 준다고 느끼는 환자일수록 의사에 대해 더 강한 신뢰를 가지며 의사가 제안하는 치료방법에 더 잘 순응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또 하나의 전형적인 예시는 Aggarwal et al.(2005)의 연구에서 찾을 수 있다. 그들은 구매자들이 인식하는 판매원의 공감능력이 판매원에 대한 신뢰 등을 강화시키는 것을 통해 미래에 있을 장기적 상호작용에 대한 예상의 정도를 높인

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판매원이 구매자에게 공감을 보였을 때, 구매자들은 그 판매원이 단순히 물건을 팔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장에 신경을 쓴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감은 판매원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연구들이 존재하나(예를 들어 Feng et al. 2004; Joseph & Winston 2005 등), 공감능력이 타인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수행하는 능동적인 역할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사회적 상호작용과 유대의 근간을 이루는 능력으로써 공감의 중요성과(Frith & Frith 1999; Herrmann et al. 2007) 사회자본 형성에 있어 신뢰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Fukuyama, 1995), 이러한 결여는 공감능력의 사회자본 형성 역할에 대한 이해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 증진을 위한 실천적 방안 탐색을 어렵게 만든다는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특정한 상호작용(의사-환자, 판매원-구매자 등) 속에서의 대인신뢰가 아닌 신뢰대상과의 사회적 거리(가족, 친구, ..., 낯선 사람 등)에 기반을 둔 구체적 신뢰(specific trust)를 공감과 연결하여 탐구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Lee & Jang 2021). 구체적 신뢰에 대해 탐구하는 것은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신뢰수준에 대해 알 수 있게 하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 그동안의 신뢰연구에서 지나치게 경시되어 왔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Hu 2020).

따라서 이 연구는 공감능력이 사회적 신뢰의 한 형태인 신뢰반경(trust radius; radius of trust)의 범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탐구한다. 신뢰반경은 ‘한 사람의 생활 세계 내에서 믿을 수 있는 집단들의 범위(van Hoorn 2014)’로서 각기 다른 구체적 신뢰대상에게 지니는 신뢰수준들의 변화 양식을 알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Hu 2017, 2020; Lim et al. 2021). 한편, 공감과 신뢰 사이의 관계를 탐구한 기존의 연구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 속에서 나타나는 대인적 공감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춰 왔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느끼고 있는 감정에 대한 인지적 이해와 정서적 반응’으로 대표되는 대인적 공감(Cuff et al. 2016)은 자신과 유사한 사람들에게 차별적으로 공감하는 경향이 있다는 한계(Gutsell & Inzlicht 2010; Vanman 2016)로 인해 내집단에 편향되어 나타날 수 있다. Segal et al.(2013)은 이러한 대인적 공감의 한계를 지적하며 ‘다른 사회적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것일지에 대해 인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인 거시적 조망수용을 포함한 사회적 공감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공감능력 개념을 확장하였다. 대인적 공감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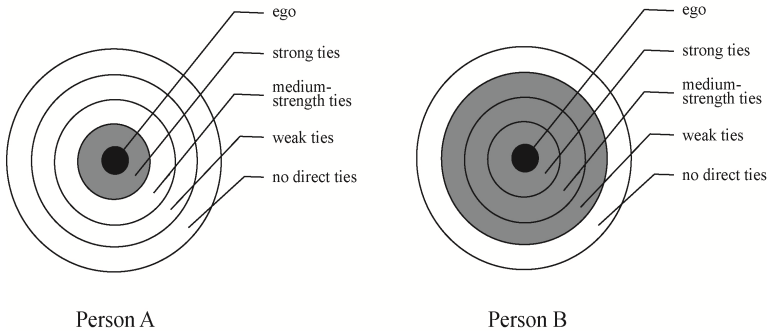
으로는 낯선 사람, 외국인 이주자 등 외집단에 대한 신뢰를 설명하는 데 제한이 있기에 이 연구는 공감의 사회적 측면인 거시적 조망수용이 신뢰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하며 이를 검증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 설문을 통해 표집된 만 20세부터 69세까지의 대한민국 성인 남녀 1,073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며, 거시적 조망수용과 신뢰반경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분석기법으로 활용한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공감과 신뢰에 관한 연구에 크게 두 가지를 기여할 수 있다. 첫째로, 여태까지 경험적으로 검증된 바 없던 사회적 공감과 사회적 신뢰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의 초석을 제시한다. 둘째로, 신뢰반경에 대한 거시적 조망수용의 효과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사회적 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들에 대한 연구들(예를 들어, 한동균 2020)과 함께 사회자본으로서의 신뢰를 높일 실천적 함의를 제공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신뢰반경

사회적으로 형성된 신뢰는 경제성장에 기여하고(Fukuyama 1995) 시민참여를 촉진하는(Paxton 2002, 2007) 등 사회적 안녕을 증진시키고 바람직한 삶과 사회를 형성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핵심적인 사회자본이라 여겨지며, 최근의 신뢰 연구자들은 신뢰수준과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신뢰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Delhey et al. 2011; van Hoorn 2014). 개인적 수준에서 신뢰반경은 ‘한 사람이 살아가는 세계에서 믿을 수 있는 집단의 범위(van Hoorn, 2014)’로 표현된다. <그림 1>을 보면, A는 가족이나 친구 등에 대해서는 강한 신뢰를 지니고 있지만, 그 외에 대해서는 신뢰를 지니고 있지 않다. 반면에 B는 자신과 접점이 전무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강한 신뢰를 지니고 있다. B는 A에 비해 넓은 신뢰반경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좁은 신뢰반경을 지닌 사람이 내집단에 제한된 협동을 하는 것에 반해, 넓은 신뢰반경을 지닌 사람은 사회적으로 거리가 멀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예를 들어 낯선 사람)과도 잘 협동할 수 있다.



<Figure 1> Illustration of Trust Radius (Hu 2017)

구성원들의 신뢰반경이 높은 사회는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더 넓은 범위에 걸쳐 협력적 규범이 작용할 것이다. 즉 이런 사회는 협동과 호혜에 기반을 둔 사회자본이 풍부하므로 사회 전체에 이로운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Fukuyama 1995). 더 나아가 개인적 수준에서 넓은 신뢰반경은 낮은 사회 갈등에 대한 인식(Lee & Suh 2019)과 주관적인 안녕감(Hu 2020) 등 여러 긍정적인 심리 결과들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듯 신뢰반경은 사회 전체에도, 그리고 개개인에게도 어느 정도 이로운 효과를 지녀 사회적 신뢰의 주요요인으로써 연구되어 왔다.

지금까지 신뢰반경의 결정요인을 탐구하는 기존의 연구는 주로 문화적 지향이나 경제적 근대화, 그리고 사회적 다양성 등 사회적인 특징들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 졌다(예를 들어 Delhey et al. 2011). 이러한 연구들의 특징은 종합적인(aggregate) 신뢰반경에 대해 탐구하며 그 분석단위를 사회 수준으로 설정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어떤 사회가 넓은 신뢰반경을 지니는가?’에 대한 거시적인 이해를 제공할 수 있지만 ‘어떤 개인이 넓은 신뢰반경을 지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는 신뢰반경의 분석단위를 개인 수준으로 설정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시도들과 맥을 같이한다(Hu 2017; 2020; Lee & Suh 2019; Lim et al. 2021; Liu et al. 2021).

2. 대인적 공감과 공감대상에 대한 신뢰

대인적 공감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마다 다양하지만, 보편적으로 ‘다른 사람이 느끼고 있는 감정에 대한 인지적 이해와 정서적 반응’의 개념을 포함하며(Cuff et al.

2016) 사회적 합의를 촉진하고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원만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된다(de Waal 2009). 그간 방대한 연구들이 높은 공감능력이 이타행동(Batson et al. 2015)과 친사회적 행동(Davis 2015) 등 사회적인 미덕들로 연결되며, 낮은 공감능력은 폭행(Joliffe & Farrington 2004)이나 성범죄(Elsegood & Duff 2010) 등 다양한 부정적 행동양식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이처럼 공감은 인간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핵심적인 인간 본성으로써 다뤄져 왔다(Rifkin 2010; Nussbaum 2015).

이에 덧붙여 공감을 연구하는 최근의 철학자들은 공감이 제공하는 혜택의 목록에 타인에 대한 신뢰를 더하려고 시도한다. 예를 들어, Bailey(2018)는 인식론적 관점에서 공감과 증언 신뢰(testimonial trust)의 관계에 대해 논하며, 공감을 통해 다른 사람이 어떠한 경험에 대해 내리는 고유한 평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결국 그 사람의 판단에 대한 신뢰로 이어진다고 주장하였다. 또 다른 예로, Betzler(2019)는 공감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논하며, 공감을 통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인식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의 진술을 신뢰하게 됨으로써 결국 공감은 다른 사람의 선의에 대한 신뢰로 연결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는 사람은 그들의 정직과 선의에 대해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일상 속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공감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선의와 협력을 얻어내는 경험을 통해 그들을 전반적으로 신뢰하게 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게 되면 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의 요구에 잘 반응하며 정서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공감대상에게 공감주체를 향한 호감, 애착, 또는 신뢰 등을 갖게 하며(예를 들어, Hojat et al. 2010; Aggarwal et al. 2005; Joseph & Winston 2005 등) 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도록 한다. 이 현상은 익명의 온라인 상호작용을 통해서도 발견되며(Feng et al. 2004), 심지어 로봇과 인간의 협동과제에 관한 실험연구에서도 사람들은 자신을 공감해준다고 느끼는 로봇에게 애착과 신뢰를 보인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Corretjer et al. 2020). 많은 사람들과 공감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상대방의 선의와 협조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가 형성될 것이다. 최근 이루어진 연구는 대인적 공감의 수준과 신뢰반경의 넓이가 강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고하였다(Lee & Jang 2021).

하지만 공감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공감하는 과정을 통해 이들에

대한 신뢰를 형성할 수 있다는 등의 잠재적 기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 속에서 나타나는 대인적 공감능력에 한정된 설명이다. 널리 알려진 대인적 공감의 한계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을 내집단과 외집단 중 어느 범주로 인식하는지에 따라 그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피부색과 같은 가시적인 차이점을 통해 나타날 뿐만 아니라(Gutsell & Inzlicht 2010) 성적 지향과 같은 문화적인 거리감으로부터도 비롯된다(Lübke et al. 2020). 예를 들어, Lübke et al.(2020)은 이성애자 남녀와 동성애자 남녀를 대상으로 한 실험연구에서 임의의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 사진을 보여주었을 때 동성애자들은 이성애자들에 비해 공감하는 반응을 보이는 정도가 덜하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는 동성애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대상을 사회적으로 다수집단인 이성애자 집단의 구성원, 즉 그들에게 있어서 외집단의 구성원일 것이라 인식하기 때문이라 여겨진다(Lübke et al. 2020).

이러한 연구들은 외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공감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Molenberghs 2013; Firat & Hitlin 2012).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다른 사람의 심리 상태를 이해하고 추적하는 것은 인지적 부담을 발생시키고 사회적 역량을 약화하기 때문에(Dávid-Barrett & Dunbar 2013), 사람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동등한 수준의 공감 반응을 보일 수 없는 것이다(Decety et al. 2010). 다른 사람의 불운에 연민하고 위로해줄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 또한 이와 같은 맥락이다(Buys & Larson 1979). 이를 근거로 추론할 때 대인적 공감능력은 자신과 유대가 없거나 유사한 특성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

3. 거시적 조망수용과 신뢰반경

외집단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공감이 잘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과 더불어 대인적 공감의 또 다른 한계는 대인적 공감이 타인이 무슨 감정을 느끼는지 이해하고 이에 대해 보이는 정서적 반응일 뿐, 그 사람이 그 상황에 놓이게 된 이유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Singer & Lamm 2009). Zahavi(2012)는 대인적 공감의 이러한 한계를 ‘that question’과 ‘why question’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예를 들

어, 다른 사람이 어떠한 감정을 느끼거나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것(that)을 알고 공감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이 왜(why) 그렇게 느끼거나 행동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대인적 공감만으로는 어떠한 외국인 이주자가 구직난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더라도 교육이나 훈련, 또는 사회적 지지의 결여와 같은 그들이 놓인 사회적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는 왜 그들이 고생하게 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Yoo & Jang 2019: 28).

Segal(2011)은 대인적 공감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사회적 약자 및 사회 구성원 전반에게 공감하는 데 있어 나와 다른 사회경제적 계층과 문화적 배경에 속한 사람들을 이해하는 능력인 사회적 공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회적 공감은 대인적 공감과 거시적 조망수용의 조화를 통해 이루어진다(Segal et al. 2013). 사회적 공감이 기존까지의 공감 개념과 구분되는 중요성을 지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거시적 조망수용이다. 거시적 조망수용은 단순히 타인의 감정이나 생각을 파악하는 능력 이상으로 ‘다른 사회적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것일지에 대해 인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대인적 공감이 다른 개인이 느끼는 감정을 대상으로 한 이해 및 반응이라면 거시적 조망수용은 다른 집단이 살아가는 상황을 대상으로 한 이해 및 반응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거시적 조망수용은 나와 다른 집단에 속하거나 나와 사회적 거리가 먼 사람들이 처한 상황 및 그 이유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지니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Petersen et al.(2010)은 복지시책의 잠재적 수혜집단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을 때보다(수혜자가 ‘50대 여성’) 더 구체적인 맥락이 제공되었을 때(수혜자가 ‘평생을 일해 왔던 노년 남성’), 사람들이 그들에 대한 복지를 지지할 공산은 급격히 치솟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어떤 집단이 처한 맥락을 이해하는 것은 해당 집단에 대한 복지시책을 지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집단에 대해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할 의도를 품게 한다(Batson et al. 2002). 이 결과는 다른 사회적 집단이 살아가는 환경에 대한 이해 능력인 거시적 조망수용이 대상 집단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거시적 조망수용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속한 정체성 집단과 다른 집단들 사이의 공통점에 대한 인식을 지니도록 할 수 있다(Segal et al. 2012). 또한 어떤 사람이 놓인 맥락을 아는 것은 그 사람의 행위 동기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Tucker 2014). 예를 들어 서론에서 제시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 불리는 일화

는 양국 병사들 서로가 원치 않게 고향을 떠나 전쟁을 수행 중이며, 가족에게 돌아가서 평온한 크리스마스를 지내고 싶어 하는 상황임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전쟁 중 불린 캐럴이 미지의 기만전술이 아니라 평화를 바라는 진심임을 알기 때문에 상대를 믿을 수 있었던 것이다. 상대방의 행위 동기를 알게 되면 무지로 인한 편견이 없어지고, 이는 신뢰로 연결될 수 있다(외집단에 대한 인식된 위협수준과 신뢰수준에 관한 연구의 예로 Rick et al. 2006; Schmid et al. 2014).

이러한 기제가 비단 외국인 이주자나 노숙자 등의 낙인집단에게만 작동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세상의 사람들 대부분은 어차피 무언가의 사회적 속성으로 구성된 낙인들을 지니고 있다(Goffman 1963). 그리하여 나와 다른 성별, 세대, 계층, 지역 등의 요소들을 지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상상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상대적으로 넓은 범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편견을 덜 지니고 더 호의적이고 협조적인 태도를 지닐 것이다. 잠재적으로 이는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을 신뢰하는 넓은 신뢰반경으로 표현될 수 있다. 신뢰반경의 넓이는 필연적으로 외집단에 대한 신뢰수준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Lim et al. 2021), 이상의 사실들을 고려해 다음의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가설 1. 거시적 조망수용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신뢰반경이 넓을 것이다.

III. 연구설계

1. 연구표본

거시적 조망수용 수준이 높을수록 신뢰반경이 넓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한국의 20세부터 69세까지 성인들을 대표하도록 표본을 설계하여 2021년 2월에 수행된 <한국사회 일반 여론 조사>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조사는 온라인 조사로서, 다수의 여론조사 경험이 있는 한 조사연구 회사가 보유한 온라인 패널 데이터베이스의 응답자 풀의 구성원들에게 이메일/메시지를 보내 소정의 보상을 대가로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참여를 시도하는 패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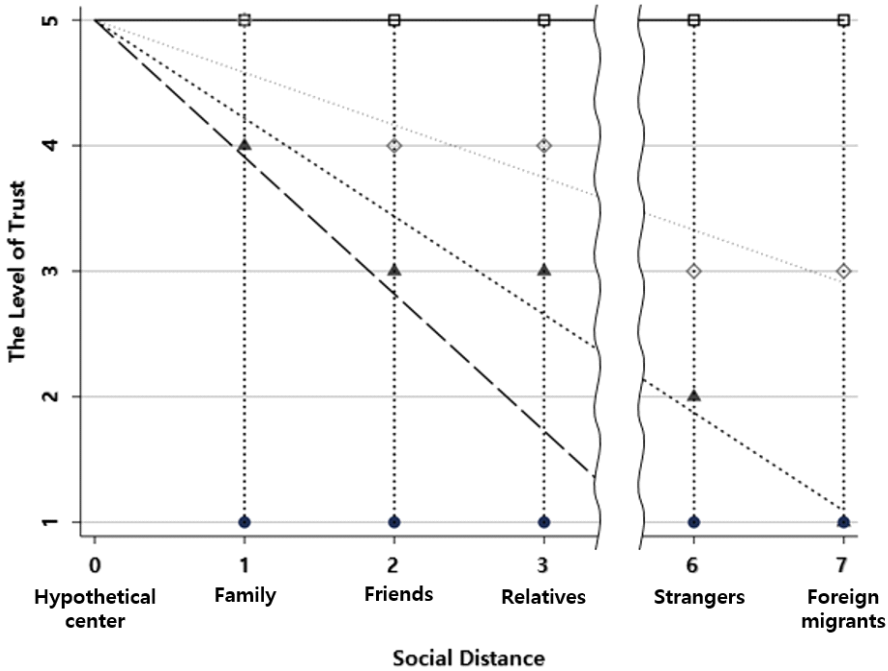
들은 2021년 2월 기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근거하여 설정한 성별·연령대별 할당표본이 충족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조사에 응하게 되며, 참여를 시도한 인원수 대비 실제 응답을 마친 인원수의 비율은 약 87.3%이다. 조사결과와 품질과 관련하여 조사업체의 담당자는 해당 업체가 한 줄 응답을 탐지하여 제재하는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조사품질 향상과 패널 관리에 능숙한 업체임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온라인 조사의 특성상 인터넷 접근성에 따른 포함오차와 자기선택오차, 불성실 응답으로 인한 응답오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따라서 연구결과를 해석하는 데 깊은 주의가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분석에 활용된 표본은 남성 543명, 여성 530명, 총 1,073명의 성인 남녀로 구성되었으며, 할당표본과 마찬가지로 성·연령대의 분포에서 70세 미만의 대한민국 성인 남녀 모집단 구성비를 따른다.

2. 측정도구

1) 신뢰반경

신뢰반경은 응답자와의 사회적 거리에 따라 변하는 구체적 신뢰의 기울기 계산을 통해 구성된다(Hu 2017; Lim et al. 2021). 변수 구성에 활용되는 문항은 가족, 친구, 친척, 이웃주민, 같은 지역 사람, 낯선 사람, 외국인 거주자의 총 7개의 대상 각각에 대한 응답자의 신뢰수준이며, 각 문항은 (1)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부터 (5) ‘매우 신뢰한다’까지 다섯 가지 선택지를 지니고 있다. 선행연구들(Hu 2017; Lim et al. 2021)을 참조하여 문항반응이론의 등급반응모형을 통해 모든 문항이 단차원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각 대상이 응답자로부터 떨어진 사회적 거리(각 대상을 신뢰한다는 응답을 함에 있어 문항 난이도)는 가까운 순서대로 가족($\theta \geq -2.7563$), 친구($\theta \geq -0.1041$), 친척($\theta \geq 0.5086$), 이웃주민($\theta \geq 1.0239$), 같은 지역 사람($\theta \geq 1.2881$), 낯선 사람($\theta \geq 2.0491$), 외국인 거주자($\theta \geq 2.2699$)의 순서와 같다.

신뢰반경을 변수화하기 위해 모든 응답자 각각에 대해 절편-제약 회귀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구체적 신뢰수준에 대한 사회적 거리의 회귀계수를 추정하였다(Lim et al. 2021 참조). 이후 해석의 편의를 위해 모든 값에 범위(약 0.8)만큼 더한 후에 다시 이 범위로 나누어 0부터 1까지의 연속변수로 구성하였다(Hu 2017). 신뢰반경의 값이 클수록 넓은 범위의 사람들을 신뢰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0은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 1은 모든 대상을 매우 신뢰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Figure 2> Illustration of Trust Radius Model (Lim et al. 2021)

Note. Four lines represent the regression lines of the trust level on social distance.

2) 대인적 공감과 거시적 조망수용

대인적 공감과 거시적 조망수용의 개념적 구분을 적절히 고려하는 유일한 측정 도구이며, 타당화를 거친 대인적/사회적 공감 지수(Segal et al. 2013; 또한 Segal et al. 2012)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대인적 공감과 거시적 조망수용의 측정도구로 활용하였다. 대인적 공감은 ‘나는 나의 견해와 타인의 견해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 ‘나는 타인의 감정을 잘 알아차릴 수 있다’, ‘나는 웃음소리를 들으면 덩달아 미소를 짓게 된다’ 등 열 가지 문항들로 구성되었으며, 거시적 조망수용은 ‘나는 나와 다른 문화 출신의 사람들을 편만한 마음으로 도울 수 있다’, ‘내가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의 정치적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낀다’ 등 다섯 가지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전체 문항은 <부록 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응답자들은 각 문항에 (1)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 ‘매우 그렇다’까지 다섯 가지의 선택지 중 하나로 응답하였다. 대인적/사회적 공감 지수의 내적 일관성을 평가하는 척도로써 크론바흐

알파 계수는 Segal et al.(2013)의 연구에서 0.85, 이 연구에서 0.87로 나타나 해당 지수는 준수한 신뢰성을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Cortina 1993). 구체적으로 대인적 공감은 0.8556, 거시적 조망수용은 0.6674로서 수용할 만한 수준의 신뢰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Ursachi et al. 2015). 이들을 변수화하기 위하여 각각의 점수를 합하였다. 공감능력은 10점부터 50점, 거시적 조망수용은 5점부터 25점의 범위를 지닌다.

3) 통제변수

이 외에도 기본적인 인구·사회·경제적 변수 및 각 과정에서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써 연령대, 성별, 교육수준, 주관적 계층의식, 직업 유무, 혼인 상태, 거주지역, 주관적 건강, 그리고 삶의 만족도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통제 변수들의 변수화와 관련된 내용은 <표 1>에 기술되어 있다.

IV. 분석결과

1. 응답자의 특성 및 변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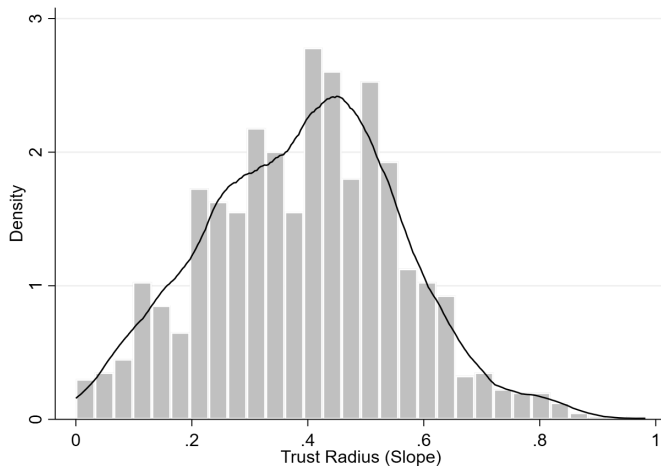
먼저, <표 1>은 연구표본의 전반적 특성을 보여준다. 특기할 만한 내용은 표본의 교육수준이 대한민국 국민 모집단에 비해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조사연도와 조사 연령대가 달라서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2019년 대한민국의 25세부터 64세 연령인구의 교육수준을 조사한 OECD의 「Education at a Glance」를 보면 이러한 차이점이 확연히 드러난다. OECD에 따르면 2019년 당시 대한민국에서 교육수준이 중학교 졸업 이하인 인구는 전체 중 11%, 고등학교 졸업은 39%, 고등교육 이상을 이수한 인구는 50%에 해당한다. 이에 반해 이 연구의 표본은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교육수준을 지닌 응답자가 전체 표본 중 75%에 달할 정도로 표본의 교육수준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고학력자, 또는 인터넷 이용률이나 접근성이 높은 응답자들이 주로 설문에 참여하게 되는 온라인 설문조사의 특징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Couper 2000).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for Control Variables ($N=1,073$)

Variables		Mean	Ratio
Gender	female		49.39%
	male		50.61%
Age group	20s		18.64%
	30s		18.73%
	40s		21.71%
	50s		21.62%
	60s		19.29%
Education level	lower than middle school		1.40%
	high school		22.83%
	college		14.17%
	higher than university		61.60%
Subjective class	(1) lowest class ~ (10) highest class	4.9617	
Occupation	unemployed/student/homemaker		30.94%
	employed		69.06%
Marital status	married		58.53%
	unmarried		35.60%
	separated/divorced/widowed		5.87%
Residential area	capital area		40.07%
	Gangwon province		3.73%
	Chungcheong province		14.07%
	Honam area		12.95%
	Yeongnam area		26.93%
	Jeju island		2.24%
Subjective health	(1) very bad ~ (5) very good	3.1286	
Life satisfaction	(1) not satisfied at all ~ (5) satisfied a lot	3.1146	

한편 <그림 3>은 이 연구의 종속변수인 신뢰반경의 분포 형태를 보여준다. Lim et al.(2021)의 관찰 결과와 유사하게 다소 양의 왜도를 지녀 우측으로 긴 꼬리를 지

닌 형태의 분포 형태로 나타나며, 이를 통해 모든 대상에 대해 높은 수준의 신뢰를 보이는 응답자는 매우 드물며 대부분의 응답자는 어느 정도의 내집단 편향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족에 대해 약간 혹은 매우 신뢰하는 사람은 전체 중의 82%에 달하는 대다수지만 외국인 이주자에 대해 약간이라도 신뢰하는 사람은 소수인 5%에 불과했다. 더 나아가, 각 대상에 대한 사회적 거리에서 가족과 다른 대상들 사이의 급격한 사회적 거리 격차(가족, $\theta \geq -2.7563$; 친구, $\theta \geq -0.1041$)는 한국인들이 신뢰하는 대상은 주로 가족이라는 것을 시사한다(Lim et al. 2021).



<Figure 3> Distribution of Trust Radius

Note: Bars for histogram and line for Kernel density plot.

2. 거시적 조망수용과 신뢰반경

<표 2>는 이 연구의 가설인 신뢰반경에 대한 거시적 조망수용의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수행된 선형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모형 (1)은 기본적인 통제변수만을 투입한 회귀모형으로서 주 독립변수인 거시적 조망수용이 투입되었을 때 모형 설명력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비교기준이다. 분석의 결과, Lim et al.(2021)과 마찬가지로 신뢰반경의 넓이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또 고연령 집단이 저연령 집단보다 넓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이하의 교육수준을

지닌 집단은 다른 교육수준 집단에 비해, 또는 주관적인 계층의식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넓은 신뢰반경을 지니고 있었다. 특히 교육수준이 신뢰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일반적인 신뢰수준이 높다고 보고하는 기존의 일반적인 신뢰 연구(예를 들어 Charron & Rothstein 2016)와 차이가 나타나며, 이는 신뢰의 강도와 무관하게 고학력자들에게 내집단의 범위가 좁게 인식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추가적으로 배우자를 상실한 집단이 유배우자 집단에 비해 더 넓은 신뢰반경을 지니고 있다고 드러났으며, 주관적인 건강수준과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신뢰반경이 높게 나타났다.

모형 (2)는 대인적 공감과 신뢰반경 사이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대인적 공감을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대인적 공감 수준은 기존 통제변수들의 계수에 큰 변화를 야기하지 않은 채 신뢰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p < 0.001$). 선행연구에서 대인적 공감과 신뢰반경 사이의 높은 상관성을 보고하였던 것과 유사하게(Lee & Jang 2021), 대인적 공감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넓은 신뢰반경을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외집단에 대하여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대인적 공감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로 인해 외집단에 대한 신뢰가 핵심요소인 신뢰반경에 있어 대인적 공감의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 연구의 논리와 상반된 결과다. 하지만 이는 거시적 조망수용이라는 핵심적인 변인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일 수 있다. <부록 2>에 있는 대인적 공감과 거시적 조망수용의 상관계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거시적 조망수용은 대인적 공감과 높은 상관성을 지니고 있다(Segal et al. 2013). 어쩌면 거시적 조망수용은 대인적 공감과 신뢰반경 사이의 관계를 연결하는 매개변수나 둘 사이의 공동변화가 있어 보이게 하는 허위변수로 기능함을 의심할 수 있다.

모형 (3)은 최종적으로 거시적 조망수용을 투입하여 거시적 조망수용과 신뢰반경 사이의 관계를 검증했다. 거시적 조망수용의 투입은 기존 대인적 공감이 신뢰반경에 대해 지니고 있던 긍정적 효과를 제거하였으며, 동시에 신뢰반경에 대한 독자적인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드러났다($p < 0.001$). 다른 사회적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것일지에 대해 인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많이 지닐수록 그 사람이 살아가는 세계에서 믿을 수 있는 집단의 범위가 넓은 것이다. 이 결과는 나와 다른 생활환경에 놓인 사람들과의 집단 간 관계 개선이나 협동, 신뢰 형성 등을 성취하는 데 있어 사회적 공감이 필수적이라는 Segal et al.(2012)의 주장

을 지지한다.

<Table 2>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s for Trust Radius

	Model (1)	Model (2)	Model (3)
Dependent variable	Trust Radius		
Gender (ref: female)			
male	0.131 ^{***}	0.146 ^{***}	0.139 ^{***}
Age group	0.214 ^{***}	0.201 ^{***}	0.197 ^{***}
Education level (ref: lower than middle school)			
high school	-0.218 [*]	-0.237 [*]	-0.240 [*]
college	-0.198 [*]	-0.202 [*]	-0.204 [*]
higher than university	-0.257 [*]	-0.284 [*]	-0.296 [*]
Subjective class	0.102 ^{**}	0.117 ^{***}	0.117 ^{***}
Occupation (ref: unemployed/student/homemaker)			
employed	0.045	0.046	0.042
Marital status (ref: married)			
unmarried	-0.018	-0.022	-0.015
separated/divorced/widowed	0.060	0.051	0.047
Residential area (ref: capital area)			
Gangwon province	0.007	0.011	0.013
Chungcheong province	0.008	0.004	0.001
Honam area	0.062 [*]	0.064 [*]	0.066 [*]
Yeongnam area	0.019	0.022	0.018
Jeju island	0.025	0.018	0.011
Subjective health	0.118 ^{***}	0.097 ^{**}	0.106 ^{***}
Life satisfaction	0.166 ^{***}	0.129 ^{***}	0.118 ^{***}
Interpersonal empathy		0.157 ^{***}	0.055
Macro perspective-taking			0.166 ^{***}
<i>N</i>	1073	1073	1073
Adj. <i>R</i> ²	0.15090	0.17232	0.188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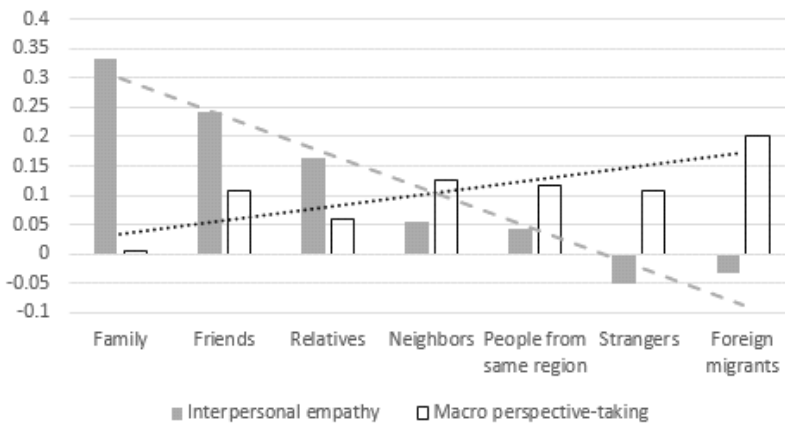
Note: * $p < 0.05$, ** $p < 0.01$, *** $p < 0.001$

<Table 3> Variation Inflation Factor Analysis of the Model

Model (3) of <Table 3>	
Gender (ref: female)	
male	1.09
Age group	
	1.68
Education level (ref: lower than middle school)	
high school	13.74
college	9.96
higher than university	18.29
Subjective class	
	1.41
Occupation (ref: unemployed/student/homemaker)	
employed	1.10
Marital status (ref: married)	
unmarried	1.80
separated/divorced/widowed	1.30
Residential area (ref: capital area)	
Gangwon province	1.07
Chungcheong province	1.18
Honam area	1.17
Yeongnam area	1.27
Jeju island	1.05
Subjective health	
	1.33
Life satisfaction	
	1.54
Interpersonal empathy	
	1.77
Macro perspective-taking	
	1.68
Mean VIF	
	3.47

하지만 이를 해석하는 데 있어 대인적 공감과 거시적 조망수용의 높은 상관성으로 인한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였던 것이 아닐까 하는 의혹이 있을 수 있다. 때문에

이를 진단하기 위하여 사후적으로 분산팽창요인을 확인하였다. <표 3>은 그 결과를 보여준다. 보편적인 경험칙에 비추어 보았을 때 대인적 공감과 거시적 조망수용의 값은 각각 1.77과 1.68로서 의심스럽지 않은 수치로 나타난다. 비록 교육수준이 높은 값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지만, 교육수준은 관심변수가 아니라 통제변수이며 3개 이상의 범주를 지닌 범주형 변수이기 때문에 이 회귀식에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무시해도 무방하다고 여겨진다.



<Figure 4> Standardized Coefficients for the Level of Specific Trust

더 나아가 대인적 공감과 거시적 조망수용이 서로 구별되는 개념이며 다른 효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4>는 가족, 친구, 친척, 이웃, 같은 지역 사람, 낯선 사람, 외국인 이주자의 사회적 거리에 따른 7개의 집단들 각각에 대한 신뢰수준을 종속변수로 하여 대인적 공감과 거시적 조망수용이 미치는 효과를 보여준다. 가로축은 사회적 거리에 따른 신뢰대상이고 세로축은 대인적 공감과 거시적 조망수용이 각 대상에 대한 신뢰수준에 미치는 영향의 표준화된 회귀계수이다. 통계적인 유의성으로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시각적으로 대인적 공감이 대상에 대한 신뢰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대상과의 사회적 거리가 증가할수록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시에 거시적 조망수용이 대상에 대한 신뢰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적 거리에 따라 증가하거나 최소한 유지되고 있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이론적으로 예측되었던 방향성과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

으며, 이는 대인적 공감과 거시적 조망수용이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개념임을 시사한다.

V.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대인적 공감과 거시적 조망수용이 신뢰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수행되었다. 분석의 결과, 거시적 조망수용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넓은 신뢰반경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사회적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것일지에 대해 인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많이 지닐수록 그 사람이 살아가는 세계에서 믿을 수 있는 집단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다. 이는 다양한 사회집단과 사회적 거리가 먼 사회 구성원들에게 넓게 퍼져나가는 신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자신과 다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능력인 거시적 조망수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Segal et al. 2012, 2013).

모든 연구들이 그러하듯 이 연구도 몇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로, 분석에 활용된 연구표본이 대한민국 성인 남녀를 모집단으로 삼고 있지만, 온라인 조사의 특성상 높은 교육수준을 지닌 사람들이 편향적으로 표집되어 모집단에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Couper 2000). 그러나 사회심리적 기제를 탐구하는 다른 많은 연구들이 인구 일반화가 아닌 표본 내의 경향성을 보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처럼, 이 연구도 연구표본 내에서 공감능력과 신뢰반경 사이의 관계에 있어 거시적 조망수용의 매개 역할이 존재함을 보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둘째로, 이 연구에서 사용된 통계적 기법의 속성상 독립변수인 거시적 조망수용과 종속변수인 신뢰반경 사이의 인과 방향성을 완벽히 입증하지 못하여 역인과 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양한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는 기질이 높은 사람이 다른 집단의 삶을 이해하는 능력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또한 이 연구는 거시적 조망수용이 대인적 공감과 신뢰반경 사이의 관계에 미치는 역할이 매개 변수인지 허위변수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특정할 수 없다. 이는 횡단적 연구가 지닌 한계로서, 이를 극복하고 엄밀한 인과관계의 파악을 위해 후속연구가 추가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로, 이 연구는 신뢰반경에 대해 탐구하지만 신뢰반경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넓은 신뢰반경을 지니고 있다고 했을 때 그 의미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사회가 믿을 만한(trustworthy) 사회인지, 아니면 단지 그 사람이 믿기 쉬운(gullible) 개인인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이 문제를 다루지 않는 것은 개인수준에서 신뢰반경을 탐구하는 모든 선행연구들이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특징이다(Hu 2017; 2020; Lim et al. 2021; Lee & Suh 2019; Liu et al. 2021). 설령 신뢰반경이 개인의 믿기 쉬운 성향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더라도, 믿기 쉬운 개인이 모인 사회는 협력적 규범의 작동을 통해 결국 사회자본 형성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거시적 조망수용이 신뢰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기제들을 제시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기제를 통해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대해 검증하지 않는다. 정확한 기제를 검증하는 것은 별개의 연구주제가 될 수 있겠으나, 이 연구의 핵심 의의는 공감과 사회적 신뢰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의 초석을 제시하고 신뢰라는 사회자본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실천적 함의를 제공한다는 데 있다.

사회적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는 실천적 함의의 예는 사회적 공감 교육 연구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동균(2020)은 기존 사회과교육 체계가 이성 위주의 지식과 사고 학습에 편향되었기 때문에 배움에서 실천이 연결되지 않는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그는 사회과 수업에 사회적 공감 기반 수업모형을 적용하여 학생들의 맥락적 이해와 거시적 조망수용 능력을 증진시킬 것을 제안하였고, 이를 통해 사회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사회적 책임감을 통한 시민참여로 이어질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렇듯 거시적 조망수용은 교육 등 제도적 개입에 의해 증진될 수 있는 요소들로서, 이들이 사회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높은 신뢰의 사회로 바꾸는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몇 가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경험적으로 검증된 바 없었던 공감능력과 사회적 신뢰 사이의 관계를 보였다는 점과 사회적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는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향후 거시적 조망수용을 증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에 대한 연구가 후속된다면 우리 사회를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 사회적 공감과 사회적 신뢰에 관한 역학은 충분히 탐구되지 않았다. 이 연구의 연장선에서 예를 들자면 거시적 조망수용이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는 효과는 성별이나 연령대, 혹은 기타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추후의 과제로서 이러한 연구들이 뒤따른다면 공감과 신뢰에 대한 연구는 더 나은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유찬기·남기범. 2018. “사회과학의 공감연구 동향과 특성.” 《문화콘텐츠연구》 0(13): 75-100.
- 한동균. 2020. “사회적 공감능력 신장을 위한 사회과교육 방안 모색.” 《사회과교육》 59(2): 149-168.
- Aggarwal, P., S.B. Castleberry, R. Ridnour, and C.D. Shepherd. 2005. “Salesperson Empathy and Listening: Impact on Relationship Outcomes.” *Journal of Marketing Theory and Practice* 13(3): 16-31.
- Bailey, O. 2018. “Empathy and Testimonial Trust.” *Royal Institute of Philosophy Supplement* 84: 139-160.
- Baron, R.M. and D.A. Kenny.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atson, C.D. 1991. *The Altruism Question: Toward a Social-psychological Answer*. New Jersey: Lawrence Erlbaum.
- Batson, C.D., J. Chang, R. Orr, and J. Rowland. 2002. “Empathy, Attitudes, and Action: Can Feeling for a Member of a Stigmatized Group Motivate One to Help the Group?”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12): 1656-1666.
- Batson, C.D., D.A. Lishner, and E.L. Stocks. 2015. “The Empathy-altruism Hypothesis.” *The Oxford Handbook of Prosocial Behavio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atson C.D., M.P. Polycarpou, E. Harmon-Jones, H.J. Imhoff, E.C. Mitchener, L.L. Bednar, T.R. Klein, and L. Highberger. 1997. “Empathy and Attitudes: Can Feeling for a Member of a Stigmatized Group Improve Feelings Toward the Grou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1): 105-118.
- Betzler, M. 2019. “The Relational Value of Empathy.” *International Journal of Philosophical Studies* 27(2): 136-161.

- Buys, C.J. and K.L. Larson. 1979. "Human Sympathy Groups." *Psychological Reports* 45(2): 547-553.
- Charron, N. and B. Rothstein. 2016. "Does Education Lead to Higher Generalized Trust? The Importance of Quality of Govern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Development* 50: 59-73.
- Corretjer, M.G., R. Ros, F. Martin, and D. Miralles. 2020. "The Maze of Realizing Empathy with Social Robots." *29th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obot and Human Interactive Communication*. 1334-1339.
- Cortina, J.M. 1993. "What Is Coefficient Alpha? An Examination of Theory and Applicatio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8(1): 98-104.
- Couper M.P. 2000. "Web Survey: A Review of Issues and Approaches." *The Public Opinion Quarterly* 64(4): 464-494.
- Cuff, B.M.P., S.J. Brown, L. Taylor, and D.J. Howat. "Empathy: A Review of the Concept." *Emotion Review* 8(2): 144-153.
- Davis, M.H. 2015. "Empathy and Prosocial Behavior." *The Oxford Handbook of Prosocial Behavio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Dávid-Barrett, T. and R.I.M. Dunbar. 2013. "Processing Power Limits Social Group Size: Computational Evidence for the Cognitive Costs of Sociality." *Proceedings of the Royal Society B: Biological Sciences* 280(1765): 1-8.
- Decety, J., C.Y. Yang, and Y. Cheng. 2010. "Physicians Down-regulate Their Pain Empathy Response: An Event-related Brain Potential Study." *Neuroimage* 50 (4): 1676- 1682.
- Delhey, J., K. Newton, and C. Welzel. 2011. "How General Is Trust in 'Most People'? Solving the Radius of Trust Problem."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6(5): 786-807.
- de Waal, F.B.M. 2009. "Putting Altruism back into Altruism: The Evolution of Empathy."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9: 279-300.
- Elsegood, K.J. and S.C. Duff. 2010. "Theory of Mind in Men Who Have Sexually Offended against Children: A U.K. Comparison Study between Child Sex Offenders and Nonoffender Controls." *Sexual Abuse: A Journal of Research and Treatment* 22(1): 112-131.
- Feng, J., J. Lazar, and J. Preece. 2004. "Empathy and Online Interpersonal Trust: A Fragile Relationship." *Behaviour and Information Technology* 23(2): 97-106.
- Firat, R. and S. Hitlin. 2012. "Morally Bonded and Bounded: A Sociological Introduction to Neurology." in W. Kalkhoff, S.R. Thye, and E.J. Lawler (Eds.),

- Biosociology and Neurosociology* (Advances in Group Processes, Vol. 29). 165-199. Bingley: Emerald Group Publishing Limited.
- Frith, C. and U. Frith. 1999. "Interacting Minds - A Biological Basis." *Science* 286 (5445): 1692-1695.
- Fukuyama, F. 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Free Press.
- Gerdes K.E., E.A. Segal, and C.A. Lietz. 2010. "Conceptualising and Measuring Eempathy." *The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40(7): 2326-2343.
- Goffman, E. 1963. *Stigma; Notes on the Management of Spoiled Identity*. New Jersey: Prentice Hall.
- Gutsell, J.N. and M. Inzlicht. 2010. "Empathy Constrained: Prejudice Predicts Reduced Mental Simulation of Actions during Observation of Outgroup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6(5): 841-845.
- Herrmann, E., J. Call, M.V. Hernandez-Lloreda, B. Hare, and M. Tomasello. 2007. "Humans Have Evolved Specialized Skills of Social Cognition: The Cultural Intelligence Hypothesis." *Science* 317(5843): 1360-1366.
- Hojat, M., D.Z. Louis, K. Maxwell, F. Markham, R. Wender, and J.S. Gonnella. 2010. "Patient Perceptions of Physician Empathy, Satisfaction with Physician, Interpersonal Trust, and Compliance." *International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1: 83-87.
- Hu, A. 2017. "Radius of Trust: Gradient-based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Social Science Research* 68: 147-162.
- Hu, A. 2020. "Specific Trust Matters: The Association between the Trustworthiness of Specific Partners and Subjective Wellbeing." *Sociological Quarterly* 61(3): 500-522.
- Joliffe, D. and D.P. Farrington. 2004. "Empathy and Offending: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9(5): 441-476.
- Joseph, E.E. and B.E. Winston. 2005. "A Correlation of Servant Leadership, Leader Trust, and Organizational Trust." *Leadership & Organization Development Journal*. 26(1): 6-22.
- Lee, S. and M.G. Suh. 2019. "The Influence of Trust Radius and Social Media on Social Conflict in South Korea." *Sociétés* 145(3): 49-62.
- Lee, S. and W. Jang. 2021. "How Much Does Empathy Resemble Trust? Trust Radius and Interpersonal Empathy in South Korea." *Culture and Empathy* 4(2): 143-155.
- Lim, C., D.K. Im, and S. Lee. 2021. "Revisiting the 'Trust Radius' Question: Individualism,

- Collectivism, and Trust Radius in South Korea.” *Social Indicators Research* 153(1): 149-171.
- Liu, S., Z. Wen, J. Su, A.M. Chong, S. Kong, and Z. Jiang. 2021. “Social Trust, Trust Differential, and Radius of Trust on Volunteering: Evidence from the Hong Kong Chinese.”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47(2): 276-291.
- Lübke, K.T., C. Sachse, M. Hoenen, and B.M. Pause. 2020. “Mu-Suppression as An Indicator of Empathic Processes in Lesbian, Gay, and Heterosexual Adults.” *Archives of Sexual Behavior* 49(2): 635-644.
- Molenberghs, P. 2013. The Neuroscience of In-group Bias. *Neuroscience & Biobehavioral Reviews* 37(8): 1530-1536.
- Nussbaum, M.C. 2015. *Political Emotion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Paxton, P. 2002. “Social Capital and Democracy: An Inter-dependent Relationship.”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7(2): 254-277.
- Paxton, P. 2007. “Association Memberships and Generalized Trust: A Multilevel Model across 31 Countries.” *Social Forces* 86(1): 47-76.
- Petersen, M.B., R. Slothuus, R. Stubager, and L. Togeby. 2010. “Deservingness versus Values in Public Opinion on Welfare: The Automaticity of the Deservingness Heuristic.”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50(1): 24-52.
- Riek, B.M., E.W. Mania, and S.L. Gaertner. 2006. “Intergroup Threat and Outgroup Attitudes: A Meta-analytic Review.”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0(4): 336-353.
- Rifkin, J. 2009. *The Empathic Civilization: The Race to Global Consciousness in a World in Crisis*. New York: J.P. Tarcher/Penguin.
- Schmid, K., A.A. Ramiah, and M. Hewstone. 2014. “Neighborhood Ethnic Diversity and Trust: The Role of Intergroup Contact and Perceived Threat.” *Psychological Science* 25(3): 665-674.
- Singer, T. and C. Lamm. 2009. “The Social Neuroscience of Empathy.”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 1156(1): 81-96.
- Segal, E.A., A.N. Cimino, K.E. Gerdes, J.K. Harmon, and M.A. Wagaman. 2013.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the Interpersonal and Social Empathy Index.” *Journal of the Society for Social Work and Research* 4(3): 131-153.
- Segal, E.A., K.E. Gerdes, J.M. Mullins, M.A. Wagaman, and D. Androff. 2011. “Social Empathy Attitudes: Do Latino Students Have More?” *Journal of Human Behavior in the Social Environment* 21(4): 438-454.
- Segal, E.A., M.A. Wagaman, and K.E. Gerdes. 2012. “Developing the Social Empathy

- Index: A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dvances in Social Work* 13(3): 541-560.
- Tucker, W.T. 2014. “Max Weber’s ‘Verstehen.’” *The Sociological Quarterly* 6(2): 157-165.
- Ursachi, G., I.A. Horodnic, and A. Zait. 2015. “How Reliable Are Measurements Scales? External Factors with Indirect Influence on Reliability Estimators.” *Procedia Economics and Finance* 20: 679-686.
- van Hoorn, A. 2014. “Trust Radius versus Trust Level: Radius of Trust as a Distinct Trust Construc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9(6): 1256-1259.
- Vanman, E.J. 2016. “The Role of Empathy in Intergroup Relations.” *Current Opinion in Psychology* 11: 59-63.
- Yoo, C. and W. Jang. 2019. “Social Empathy for Society beyond the Social Work Profession: A Contextual Understanding of Poverty and Attitudes towards Government Interventions.” *Sociétés* 145(3): 25-36.
- Zahavi, D. 2012. “Comment: Basic Empathy and Complex Empathy.” *Emotion Review* 4(1): 81-82.

<접수 2021.06.14; 수정 2021.08.15; 게재확정 2021.08.21.>

Does Empathy Engender Trust?: Macro Perspective-taking's Influences on Trust Radius

Chanki Yoo

(Center for Glocal Culture and Social Empathy, University of Seoul)

Wonho Jang

(Department of Urban Sociology, University of Seou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diverse aspects of empathy and social trust, which has not previously been empirically verified despite the psycho-social significance of both concepts. A person with high empathic ability may tend to trust others well. However, it is not exactly clear which kind of empathic ability is required to empathize with a specific target, for it may be different depending on how socially distant one is from the target. Thus this study argues that macro perspective-taking can indeed widen one's trust radius. To verify this empirically, the study conducted an online survey targeting 1,073 adult men and women and then carried out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the survey data. It was found that people with greater empathy have a wider trust radius, and that this is not a result of interpersonal empathy but instead due to macro perspective-taking. With these findings, this study lays the foundation for future empirical research on empathy and social trust while at the same time providing practical implications for enhancing trust as a form of social capital.

Key words: interpersonal empathy, macro perspective-taking, trust radius

<Appendix 1> Korean translation of the ISEI (Segal et al., 2013)

Social Empathy	Cognitive Empathy	나는 나의 견해와 타인의 견해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 (1) I can consider my point of view and another person's point of view at the same time.
		나는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한다. (2) I am good at understanding other people's emotions.
		나는 어떤 사람이 강한 감정을 느끼고 있을 때 그 사람의 감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3) When I see a person experiencing a strong emotion I can accurately assess what that person is feeling.
	Interpersonal Empathy	나는 나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 간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 (4) I can tell the difference between someone else's feelings and my own.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다. (5) I am aware of what other people think of me.
		나는 타인의 감정을 잘 알아차린다. (6) I am aware of other people's emotions.
	Self-Other Awareness	나는 내가 현재 느끼고 있는 감정을 타인에게 설명할 수 있다. (7) I can explain to others how I am feeling.
		나는 누군가 선물을 받고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면, 나 또한 행복해진다. (8) When I see someone receive a gift that makes them happy, I feel happy myself.
		나는 슬픈 소식을 접한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도 잠시 슬픔을 느낀다. (9) When I am with someone who gets sad news, I feel sad for a moment too.
	Affective Response	나는 웃음소리를 들으면 미소를 짓게 된다. (10) Hearing laughter makes me smile.
Macro Perspective-Taking		나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기꺼이 남을 도우려 한다. (11) I take action to help others even if it does not personally benefit me.
		나는 나와 다른 문화 출신의 사람들을 편안한 마음으로 도울 수 있다. (12) I am comfortable helping a person of a different race or ethnicity than my own.
		내가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의 정치적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낀다. (13) I feel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political perspectives of people I don't agree with.
		나는 차별받는 사람들이 느끼는 스트레스가 더 심하다고 믿는다. (14) I believe that people who face discrimination have added stress that negatively impacts their lives.
		나는 정부가 소수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5) I believe government should protect the rights of minorities.

<Appendix 2> Correlation table of key variables by gender

Male \ Female	IE	MPT	TR
IE	-	0.5866	0.2427
MPT	0.6578	-	0.2214
TR	0.2332	0.2892	-

Note: IE=Interpersonal Empathy, MPT=Macro Perspective-Taking, TR=Trust Radius.